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삶의 순환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남 지 형

# 삶의 순환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남 지 형

# 인 준 서

남지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순환이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되풀이 하여 돛, 또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반복되는 일상의 물리적 경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 세포들의 끊임없는 생물학적 순환의 경험 또는 지구 공전에 따른 사계절 변화의 경험 등과 같이 삶 속에서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을 경험한다. 순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은 필수불가결하며 순환하는 과정에서 축적(蓄積)이 이루어진다.

본인은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낙화(落花)로써 이야기하고자 한다. 낙화란 꽃이 저 떨어짐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은 떨어짐, 낙하 등 하강하는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은 낙화를 통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떨어짐이 소멸하는 것이 아님에 집중했다. 봄철 꽃이 만개하고 열흘에 지나지 않아 저버리지만 바닥에 떨어져 쌓인 꽃잎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쌓여가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비가시적이지만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음을 표현한다.

본 논문은 2018년 석사학위 청구전에서 발표한 작품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순환의 과정에 대해 작품형성배경을 서술하였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순환의 과정을 느낄 수 있도록 관객참여형 설치와 반복적 행위를 통한 축적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인작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제Ⅲ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발전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작품 형성 배경 .....	3
1) 생성과 소멸 .....	3
2) 경험의 축적(蓄積) .....	4
2. 작품 표현 방법 .....	7
1) 관객참여형 설치 .....	7
2) 반복적 행위 .....	8
3. 작품 분석 .....	10
III. 결 론 .....	24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Circulation / 가변설치 / 철판용접 / 2018 .....	10
【작품 2】	Accumulate / 35×35×65 (Cm) / 동 용접 / 2018 .....	12
【작품 3】	Accumulate / 100×30×35 (Cm) / 동 용접 / 2018 .....	14
【작품 4】	Accumulate / 120×80×10 (Cm) / 동 용접 / 2018 .....	16
【작품 5】	Accumulate / 78×50×5 (Cm) / 동 용접 / 2018 .....	18
【작품 6】	Accumulate / 100×50×40 (Cm) / 동 용접 / 2018 .....	20
【작품 7】	Accumulate / 110×60×35 (Cm) / 철 용접 / 2018 .....	22

## I. 서 론

우리나라의 봄철은 3월~5월의 3개월 동안인데 이때에 식물은 화려한 꽃을 피운다. 대부분 이 기간에는 각종 행사로 인해 삼삼오오 모여 꽃놀이 가기에 바쁘다. 하지만 자칫 이 짧은 기간을 놓치면 이미 꽃은 저버렸기에 피어있는 꽃보다는 바닥에 떨어져있는 꽃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이처럼 만개한 꽃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인간에게 환희를 선사하는 동시에 허무함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감정을 본인은 대학시절 산악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산에 매료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산에서 보낼 때 크게 느낀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하지만 본인의 기억은 허무에서 그치지 않았고 가을,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움을 깨달았고 지나간 봄이 사라진 것이 아닌 계속해서 본인의 기억에 축적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했다. 즉, 축적된 삶이 체험적 결과인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들을 작품표현에서도 축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위에 중점을 두었고 떨어뜨리는 행위와 반복적 행위를 노동집약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체험적 결과의 축적을 낙화로써 표현하되 일차적 낙화의 이미지가 아닌 알레고리로써 표현하고자 하였고 본인이 행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유닛(Unit)들을 축적해 가면서 지나 간 것들은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축적되어 가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방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순환하는 삶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의 축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경험적 축적을 보여주기 위한 본인의 작품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순환하는 과정을 체험 할 수 있는 요소를 고찰하였다.

셋째, 본인 작품의 형태와 재료적 특징, 의미, 제작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 1) 삶의 순환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순환활동을 하고 있다. 계절의 순환과 같이 인간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순환이 있는 반면에 경제, 문화, 자금과 같이 비가시적인 순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순환에 따른 생성과 소멸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자연에서의 소멸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저자 베른트 하인리히(Bernd Heinrich)<sup>1)</sup>는 “자연 속에서의 생명은 갑자기 먼지에서 생겨나지 않았고, 다시 먼지로 돌아가지 않으며, 그 자신이 곧 또 다른 생명으로 통하는 통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소멸하는 과정은 생성의 연속인 것이다. 죽음을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윤회로 볼 수 있다. 이는 생명을 인연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sup>2)</sup>으로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 아닌 대자연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죽어 몸은 없어지지만 인간의 낫은 소멸하지 않고 다른 몸으로 옮겨가 끊임없이 순환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자<sup>3)</sup>는 “자연의 장생, 변화, 소멸을 이루는 현장의 근원적인 내적 원

---

1) 저자 베른트 하인리히(BERND HEINRICH 1940~)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물학자이자 문필가. 1940년 폴란드 보로브케에서 태어난 독일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고향을 떠나 독일 한하이데 숲으로 이주하여 유년기를 보냈다. 1951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메인주립대학교에서 동물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UCLA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UCLA와 UC버클리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2015년 현재 메인 주의 통나무집에 살면서 저술 활동을 하며 버몬트대학교 생물학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 정병조, 「불교의 생사관」, 강학 생연원, 1993. p.225

3) 중국 송나라의 정명도(程明道, 1032~1085)와 정이천(程伊川, 1033~1107) 두 형제를 말하며 이

리에 질서와 조화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였고 노자<sup>4)</sup>는 “인간은 땅의 법칙에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에, 도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였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화두 되고 있다. 미술 속에서 죽음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죽음은 소멸이 아닌 새로운 삶의 존속으로 순환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은 곧 소멸과 단절로써 인간에게 허망함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본인은 전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의 비가역적인 속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사계절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 되 돌아오는 것이 아닌 새로운 봄이 오는 것인데 여기서 본인은 사라진 봄을 단절과 죽음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축적되어 순환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 2) 경험의 축적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해서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 동안 끊임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경험은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 근대 경험론의 선구를 이룬 것은 17세기 영국의 베이컨(F. Bacon)과 로크(J. Locke) 등이다. 베이컨은 참다운 학문은 경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절대시하였다. 로크는 “감각은 지식의 시작이요, 첫째 단계이다”라고 했으며 백지(白紙)와 같이 아무 성질도 없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이라고 하였다.<sup>5)</sup>

미적 경험이란 인간이 느낀 아름다움이나 유사한 중요성을 감각을 통해 얻

---

(二)정자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4)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며 도가(道家)의 시조이다. 성은 이(李),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5) 경험주의,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는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낭만주의가 천부적인 작가의 창조를 중시하고 예술가의 천재적 표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추체험의 대상이라는 딜타이(Dilthey)<sup>6)</sup>류의 미적 체험의 미학이 성립되었다. 딜타이는 “삶은 삶 그 자체로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근본적인 가정(공리)를 도출해냈다. 그리고 요소로 분석되지 않고 이해된 ‘삶’을 ‘직접경험’이란 용어로 표현했다.<sup>7)</sup> 직접 경험에 대해서 칸트와 같은 관념론자들은 오성(悟性)형식<sup>8)</sup>에 의해 다양한 이해 감각내용이 인식되어 통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삶’이라는 경험도 오성형식에 맞게 이해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딜타이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의 구체적이며 생생한 체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직접체험만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형식’을 산출하고, 다시 이 ‘형식’에 의해 새로운 체험이 거듭되고, 여기서 다시 되풀이해서 ‘형식’이 산출되는 나선형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9)</sup>

본인의 경험 중심으로 보자면 자연과 식물에서 큰 모티브를 얻었는데 특히 4년 동안 산에서 느낀 감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은 항상 경이로웠다. 봄이 오면 겨우내 뾰뾰 얼어있던 산은 마치 토해내듯 짝을 띄우고 푸룽푸룽해지며 냄새 또한 그 어떤 향수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향기롭다. 산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색을 바꿨고 생성하고 소멸하며 움직였다. 봄에 산은 꽃이 피어 형형색색 화려한 색을 하고 있지만 금시에 꽃은 떨어진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단풍을 띄워 붉게 만든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 다시

6) 딜타이(Dilthey 1833~1911), 독일의 철학자, 생(生)의 철학의 창시자. 베를린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자연과학에 대해 정신과학의 영역을 기술적·분석적·심리적 방법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어 I.칸트의 비판정신의 영향을 받아, G.W.F.헤겔의 이성주의·주지주의에 반대하여 역사적 이성의 비판을 제창했다. 두산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

7) Valis Deux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남도현 옮김,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2, p33

8) 오성(悟性)형식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구비된 형식이 감각으로부터 생기는 다양한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통일된 인식 대상을 산출해낸다고 칸트는 생각했다. 이 형식은 직관의 형식(공간과 시간)과 오성의 형식(분량과 관계 등의 카테고리)이다. 위의 책, p33

9) 위의 책, p35

봄이 오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봄에 대체 되는 것이 아닌 중첩되고 축적된다고 생각했다.

축적은 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모여 누적되는 현상을 말하며 여기서 본인은 경험의 축적 즉, 시간의 축적을 이야기한다.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χρόνος)<sup>10)</sup>와 카이로스(καιρός)<sup>11)</sup>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언급해보자면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절대적인 순환적 의미의 시간을 뜻하며 카이로스는 상대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시간을 뜻한다. 흘러버린 크로노스의 시간과 꺾게 될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사이에서 행위를 통한 흔적을 남김으로써 경험(시간)이 축적됨을 보여준다.

본인은 순환하는 모래시계의 형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유닛을 쌓아감으로써 표현한다. 이러한 행위는 나의 경험을 스스로 축적해가는 일련의 기록이기도하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만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책 또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경험들은 현재의 나를 존재하게 하기도 한다.

본인은 이러한 내용을 작품표현방식에서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알레고리란 어떤 한 주제A를 말하기 위하여 다른 주제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수사법<sup>12)</sup>이며 인물, 행위, 배경 등이 일차적 의미(표면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이면적 의미)를 모두 가지도록 고안된 이야기이다.<sup>13)</sup>본인의 작품에서 일차적 이미지는 행위의 축적물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떨어져 쌓인 꽃잎들이 본인의 기억 속 오브제로 표현되며 이차적 의미는 축적된 작은 유닛들이 우리의 경험의 부분들이고 지나간 경험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축적되어 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

10)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의 아버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11)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기회의 신을 뜻하기도 함,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12) 알레고리(Allegory),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https://dict.naver.com/>)

13) 알레고리(Allegory),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

본인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계의 현상을 인간의 경험에 대입했고 꽃이 떨어져 바닥이나 사물위에 쌓이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 제작과정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를 중시했다. 동이 떨어지는 순간 퍼지는 물성을 이용하였고 그 물성이 자연계의 낙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또는 철 유닛을 반복적으로 용접해 나가면서 본인의 기억의 조각들을 이어나가 상기시키고 본인의 존재를 인지한다.

## 2. 작품 표현 방법

### 1) 관객참여형 설치

관객참여 설치작품에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게 되는데 키네틱 아트(Kinetic Art)와 옵티컬 아트(Optical Art)이다. 키네틱아트는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작품과 관객이 작품을 움직일 수 있는<sup>14)</sup> 작품이고 옵티컬아트는 착시에 의해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작품<sup>15)</sup>을 말한다.

모든 예술은 관객과 소통을 해왔는데 관객참여미술은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눈으로만 감상하는 수동적인 작품 감상에서 벗어나 쌍방향적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는 키네틱 아트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자극이 불러오는 요소이기도하다. 감각은 신체 내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생기는 의식의 체험이고 인간은 각각의 감각에서 얻은 정보를 조합하여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순환과 축적인데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장 표면적으로 들어낸 작품이 【작품 1】이다. 【작품 1】은 모래시계의 형상으로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돌릴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붙어있다. 모래시계

---

14) 키네틱 아트(Kinetic Art),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https://dict.naver.com/>)

15) 옵티컬 아트(Optical Art),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대사전(용어편)(<https://dict.naver.com/>)

는 중력에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의 부피로 시간을 재는 장치인데 일반적인 시계의 연속적인 시간흐름 보다는 타이머와 같이 단발적인 시간을 측정하며 시각적인 효과를 더 중시한다. 모래시계의 시각적인 효과가 시간흐름의 속성을 나타내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모래시계에는 수많은 크리스털들이 와이어줄에 연결되어 있는데 관객이 손잡이를 돌리면 중력에 의해 크리스털들은 떨어지고 쌓여간다. 계속해서 돌림으로써 크리스털들의 떨어져 쌓이고 다시 떨어지는 반복된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세 개의 같은 모래시계가 나열되어 있는데 각각의 손잡이는 어떤 다른 표지판이 없이도 당연하게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객은 이전에 미술관에서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라고 써져있는 글을 본 경험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은 관객의 참여로 완성이 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관객참여형 작품이 가지는 특성이다. 본인의 작품에 참여할 때 관객은 시각, 촉각, 청각의 자극을 느낀다. 본인은 여기서 작품과 관객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관객이 직접 작품을 돌리는 행위로써 관객은 순환의 과정을 보면서 축적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관객 모두가 갖고 있는 기존의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 할 수 있다.

## 2) 반복적 행위를 통한 축적

본인의 작품 【작품 2】 , 【작품 3】 , 【작품 4】 , 【작품 5】 는 용접토치에 산소가스와 LPG가스를 연결해 동(Copper)을 녹여 반복적으로 떨어뜨려 쌓은 작품이다. 철 조각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행위와 과정에 집중한 본인은 동을 떨어뜨리는 기법을 선택했다. 동은 떨어지면서 표면에 닿을 때 다른 철의 종류와 다르게 퍼지면서 굳는 형태를 갖는다. 이 형상은 꽃잎이나 낙엽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와 유사하게 보인다. 계속해서 동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며, 유닛들이 모여 형태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 시간이 축적되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유닛들은 우연하게 모두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유사하다.

작품 【작품 6】 , 【작품 7】 은 철 조각의 유닛들을 용접하면서 무수히 이어 나갔고 작고 무질서적인 개체들은 축적되며 형상을 이루어간다. 데이비드 흄(David Hume)<sup>16)</sup>은 자아라는 단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지각, 사고의 다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즉 ‘묶음’이라고 생각했다. 본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무수히 많은 경험들은 단일한 주체가 아닌 연결되고 연결되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연결된 철 조각들은 인간이 겪었던 경험들의 나열된 것이며 빈 공간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남은 경험들은 공간을 의미한다.

작품 【작품 6】 은 본인이 유년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경험은 현재의 본인 또한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한다. 어릴 적 장독대위에 쌓여 있는 꽃잎이나 눈들을 흘트리며 놀았던 기억은 현재의 본인에게 축적되어있고 유사한 장면을 보았을 때 반복하게 된다. 이처럼 무수히 얹혀있는 경험들을 반복적 행위를 통해 상기된다.

작품 【작품 7】 또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산에 다니면서 계절이 변하고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를 인지하였고, 겪었던 변화의 경험을 철 조각을 반복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상기시키게 된다. 여기서 데이비드 흄이 말하는 ‘묶음’이 본인의 자아로 볼 수 있다.

---

16)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 영국의 철학자. 그의 인식론(認識論)은, J.로크에서 비롯된 '내재적 인식비판'의 입장과 I.뉴턴 자연학의 실험·관찰의 방법을 응용했다. 인간본성 및 그 근본법칙과 그것에 의존하는 여러 학문의 근거를 해명하는 일이었다. 흄스의 계약설을 비판하고 공리주의를 지향한다. 두산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

### 3. 작품분석



【작품 1】 Circulation

## 【작품 1】 Circulation

제작연도 : 2018년

작품크기 : 가변설치

작품재료 : 철판용접, 크리스털, 와이어줄, 베어링

###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스케치 한 후 모래시계의 받침대를 레이저 커팅한 후 용접하여 미리 제작한다.
2. 철 파이프를 U자 모양으로 밴딩하여 모래시계의 받침대에 용접한다.
3. 모래시계의 본체를 만들 철판을 레이저 커팅 한 후 타공하고 90도 간격으로 기둥을 용접한다.
4. 완성 된 본체에 베어링을 용접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받침대와 결합한다.
5. 베어링에 철파이프로 L자 모양의 손잡이를 만들어 준다.
6. 크리스털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칠한다.
7. 타공된 구멍에 와이어줄을 묶고 크리스털을 매단 후 반대쪽 타공된 구멍에 묶어준다.
8. 크리스털을 반씩 나눠서 가운데를 와이어줄로 묶어준다.

### 작품설명

본인은 순환하고 축적되는 과정을 낙화에 비유해서 작품표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흐름의 알레고리로써 모래시계를 선택하였고 모래시계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떨어지는 크리스털의 유닛들은 마치 꽃이 떨어지는 낙화를 연상시킨다. 관객은 손잡이를 돌려 모래시계를 움직이는데 관객의 행위를 통해 모래시계는 순환과 축적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즉, 생성과 소멸이 거듭되고 그 과정의 시간과 경험은 계속해서 축적됨을 보여준다.



【작품 2】 Accumulate

## 【작품 2】 Accumulate

제작연도 : 2018년

작품크기 : 35x35x65(cm)

작품재료 : 동 용접, 우레탄코팅

###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스케치 한 후 점토로 형태를 만든다.
2. 점토작업을 완성 후 석고로 곁틀을 만든다.
3. 곁틀에 내부에 산소가스와 LPG가스를 연결한 용접토치로 동판을 녹여 떨어뜨려 용접한다.
4. 각 틀에 용접된 동을 틀과 분리하여 원형들끼리 결합하고 안쪽에 동 파이프를 뼈대를 잡아준다.
5. LPG가스로 동에 불을 먹여 색을 다양하게 표현해준다.
6. 우레탄으로 코팅을 한다.

### 작품설명

낙화의 알레고리적 표현으로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본인이 산에서 텐트를 치지 않고 비바크(biwak)를 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낙엽과 꽃잎이 몸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 경험은 본인에게 축적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고 봄에는 꽃잎이었지만 여름에는 비,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눈이 축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일차적인 낙화의 경험을 우리의 지나간 비가시적 경험에 대입하였고 동을 녹이는 행위를 통해 유닛들을 쌓아 올렸고 작품에서는 본인이 행한 축적물이 그대로 드러난다.



【작품 3】 Accumulate

### 【작품 3】 Accumulate

제작연도 : 2018년

작품크기 : 100x10x35(cm)

작품재료 : 동 용접, 우레탄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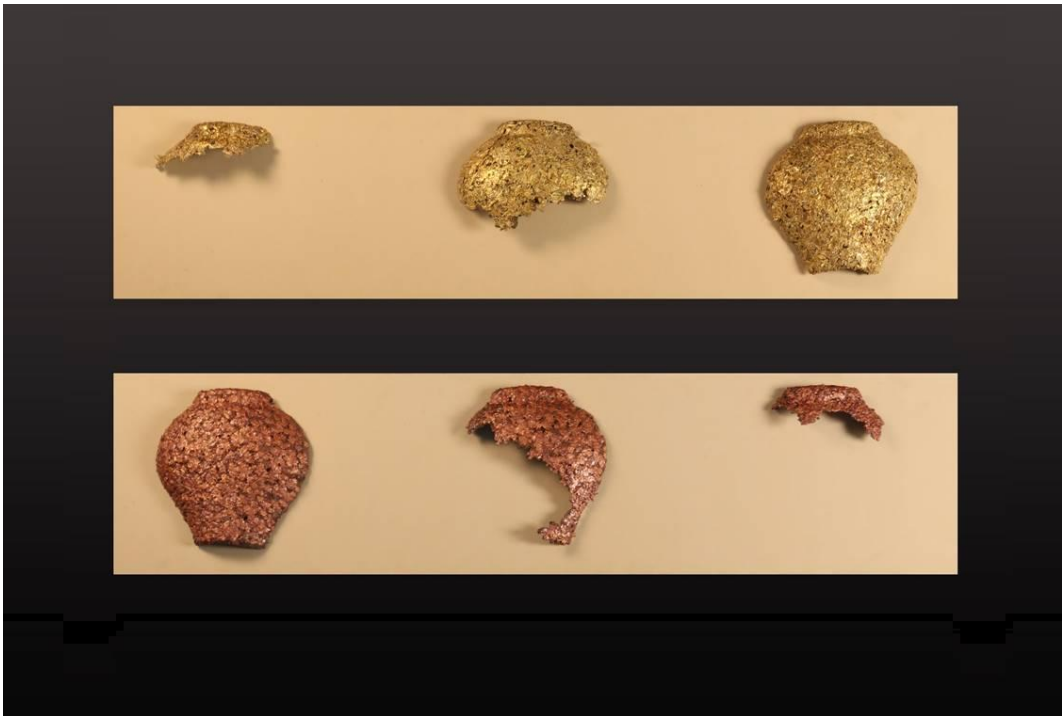
####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스케치 한 후 점토로 형태를 만든다.
2. 점토작업을 완성 후 석고로 곁틀을 만든다.
3. 곁틀에 내부에 산소가스와 LPG가스를 연결한 용접도치로 동판을 녹여 떨어뜨려 용접한다.
4. 각 틀에 용접된 동을 틀과 분리하여 원형들끼리 결합하고 안쪽에 동 파이프를 뼈대를 잡아준다.
5. LPG가스로 동에 불을 먹여 색을 다양하게 표현해준다.
6. 우레탄으로 코팅을 한다.

#### 작품설명

물속에 잠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인체는 계곡에 흘러내려가는 꽃잎을 보았던 순간의 기억을 모티브로 하였다. 수면위에 축적되어 흘러가는 꽃잎들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흘러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꽃잎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대자연으로의 순환이라고 보았다.

여성의 인체는 본인을 표현한 것이며 본인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수면 위의 꽃잎처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인체의 절반은 수면에 잠식되어있듯 표현하였고 그 위에 동을 떨어뜨려 꽃잎이 축적되어 가는 것을 표현하였다.



【작품 4】 Accumulate

#### 【작품 4】 Accumulate

제작연도 : 2018년

작품크기 : 120x80x10(cm)

작품재료 : 동 용접, 철판용접, 우레탄코팅

####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스케치 한 후 점토로 형태를 만든다.
2. 점토작업을 완성 후 석고로 곁틀을 만든다.
3. 곁틀에 내부에 산소가스와 LPG가스를 연결한 용접도치로 동판을 녹여 떨어뜨려 용접한다.
4. 각 틀에 용접된 동을 틀과 분리하여 안쪽에 동 파이프를 뼈대를 잡아준다.
5. 철판에 용접해 고정시킨다.
6. LPG가스로 동에 불을 먹여 색을 다양하게 표현해준다.
7. 우레탄으로 코팅을 한다.

#### 작품설명

작품의 표면적인 형태는 점차적으로 채워져 가고 점차적으로 비워져간다. 이것은 쌓임과 순환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인데 동을 축적해서 생성과 소멸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항아리가 단계적으로 채워지는 모습은 우리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축적되어가는 모습이고 단계적으로 비워져가는 모습은 지나가는 시간들을 비유한 것이다. 【작품 1】 과 유사한 맥락으로 생성과 소멸을 나열함으로써 순환과 축적 그리고 자연으로의 귀환을 표현한다.



【작품 5】 Accumulate

## 【작품 5】 Accumulate

제작연도 : 2018년

작품크기 : 78x50x5(cm)

작품재료 : 동 용접, 철판용접, 우레탄코팅

###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스케치 한 후 점토로 형태를 만든다.
2. 점토작업을 완성 후 석고로 곁틀을 만든다.
3. 곁틀에 내부에 산소가스와 LPG가스를 연결한 용접토치로 동판을 녹여 떨어뜨려 용접한다.
4. 각 틀에 용접된 동을 틀과 분리하여 안쪽에 동 파이프를 뼈대를 잡아준다.
5. 철판에 용접해 고정시킨다.
6. LPG가스로 동에 불을 먹여 색을 다양하게 표현해준다.
7. 우레탄으로 코팅을 한다.

### 작품설명

시골에서 살았던 본인은 서울로 상경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시골과 도시는 많이 달랐고 본인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좋은 점 이면에 힘든 점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인간의 삶이며 좋음과 나쁨으로 표현 할 수 없는 일련의 경험과 과정일 뿐이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본인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시의 빼곡한 빌딩들 위로 유닛들이 떨어져 쌓인 형태는 성인이 된 후 도시에서 본인이 겪은 수많은 경험들의 축적을 표현한 것이며 또한 그 경험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표현한다.



【작품 6】 Accumulate

## 【작품 6】 Accumulate

제작연도 : 2018년

작품크기 : 100x50x40(cm)

작품재료 : 철 용접, 우레탄 도색

###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스케치 한 후 스티로폼을 연선으로 잘라낸다.
2. 사포로 연마 후 석고로 곁틀을 만든다.
3. 곁틀 안쪽에 아르곤 용접기계를 이용해 철 조각들을 용접한다.
4. 각 틀에 용접된 철 조각들을 틀과 분리하여 원형들끼리 결합한다.
5. 우레탄으로 채색한다.

### 작품설명

유년시절 시골에 살았던 본인은 봄철 장독대 위로 쌓인 꽃잎들을 헤집으며 놀곤 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꽃잎은 쌓여있었고 본인에게는 재미난 놀이거리가 되곤 했었다.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눈이 왔었고 눈이 쌓인 장독대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곤 했었다. 그 기억은 본인에게 아직까지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본인 또한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한다.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면 헤집고 싶어지고 먼지가 쌓인 자동차 유리 위에 낙서를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유년시절의 기억이 축적되어 있음을 장독대라는 기억 속 오브제로써 표현하였다.



【작품 7】 Accumulate

## 【작품 7】 Accumulate

제작연도 : 2018년

작품크기 : 110x60x35(cm)

작품재료 : 철 용접, 우레탄 도색

### 제작방법

1. 구상한 작품을 스케치 한 후 스티로폼을 연선으로 잘라낸다.
2. 사포로 연마 후 석고로 겉틀을 만든다.
3. 겉틀 안쪽에 아르곤 용접기계를 이용해 철 조각들을 용접한다.
4. 각 틀에 용접된 철 조각들을 틀과 분리하여 원형들끼리 결합한다.
5. 우레탄으로 채색한다.

### 작품설명

본인이 4년 동안 산에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산은 봄에는 핑크빛으로 여름에는 녹색, 가을에는 붉은색, 겨울에는 흰색으로 쌓여 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색을 바꾸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

본인은 이렇게 색이 변하는 산을 다니며 겪었던 기억들이 아직까지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일차적인 낙화의 경험을 본인의 지나간 비가시적 경험에 대입하였고 철 유닛들을 반복적으로 용접해 표현하였다. 반복적 행위를 통해 유닛들을 축적해 가면서 지나 간 시간이 축적되어 가고 있음을 표현한다.

### Ⅲ. 결 론

본 연구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나간 시간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허망함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인간의 삶에서 지나간 경험과 기억, 행위들은 모든 순간이 절정기이며 절정기가 지나 저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음을 인지했다. 생성과 소멸을 위해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처럼 인간의 경험 또한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하면서 우리에게 축적되어 가고 있다. 시간의 비가역적인 속성으로 인해 경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미래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낙화의 순간을 포착하여 가장아름다운 순간으로 여겼고 행위에 집중하게 되었다.

동이 가열되고 녹아서 떨어지는 순간을 낙화의 순간으로 비유했고 나의 경험적 시각에 대입하여 특정 사물들을 덮은 형태를 형상화했다. 동을 달구면 1084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절정기인 시간도 축적되어간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며 희망 또는 기대감을 주기도 한다.

본인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순간의 경험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본인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축적하는 행위를 중요시하였고, 관객 또한 축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했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 관객참여를 유도했고 관객이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작품은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으며 관객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를 마치며 본인은 과거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축적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를 본인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찰 할 것이며 관객과의 소통에서 풀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표현해 나가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 정병조, 『불교의 생사관』, 강학 생연원, 1993
- 조현규, 『동양의 지혜를 찾아서』, 책과나무, 2017
- 정동암, 『미디어 아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 번역본 》

- Valis Deux,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남도현 옮김,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2
- 군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1』, 윤형식 역, 이학사, 2016
- 에른스트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백승길 역, 예경, 2003

### 《 인터넷 사이트 》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네이버 지식백과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Life Circulation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Nam, Ji Hyu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ircul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cyclical or cyclical repetition. Humans experience the process of constant circulation in their lives, such as the repeated physical experiences of daily life, the endless biological cycle of body cells to sustain life, or the change of the four seasons due to orbit of Earth. In order for the circulation to exist, ascension and descent, formation and destruction are indispensable, and accumulation occurs during the cycle.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falling petals to allegorically express this process of circulation. The falling of blossoms stands that the flowers have fallen and has a negative perspective. Men do not tend to accept the image of descent nor falls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I, agree with the concept of natural falls which takes place in the process of cycle. Moreover, they do not vanish after all. In spring, the flowers are in full bloom and fade away after only 10 days, but the petals that fell on the floor were not going to disappear, but to show

that they were accumulating. Everything that humans experience in life is invisible, but expresses the accumulation in us.

This thesis is composed of the works published before the request of master degree in 2017 as follows.

Chapter I Introduction describes the research direction and purpose of my work.

In Chapter 2, I have paved the background path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works which we undergo through our lives. Additionally, I set up an interactive design to make visitors involved to get them feel what the process of circulation is. This paragraph also described accumulation through repetitive actions. According to these, I have analyzed my works thoroughly.

In Chapter III, the conclusions were summarized through this paper, and the development tasks of the method of expressing one's work and the directions to be taken were described.